



오는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공연에 참여할 12명의 꿈꾸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13명 꼬마연주자들 “꿈의 무대 섭니다”

‘꿈꾸리 오케스트라’ 내일 세종문화회관 공연

오디션 통해 선발 “멋진 연주 들려드릴게요”

13명의 ‘꼬마 연주자들’이 우리 나라 최대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선다.

15일 광주 아트스페이스 연습장에서 만난 아이들은 모두 ‘설레임 반, 걱정 반’이라고 했다. 혹시 실수는 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지만 다들 신나고 뜻满满的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한 염성현(광주 남초교 3년)군은 “엄마가 세 종문화회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고, 큰 공연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설 생각을 하니까 떨린다”고 말했다.

헬로를 연주하는 전세연(용봉초 5년)양은 “이 기분을 말로 표현못 하겠는데 긴장되기도 하지만, 설레

여서 얼른 무대에 서고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청소년교양

스테마’처럼 음악으로 아이들을 치유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는 공모에 당선돼 지난 2011년 11월 ‘꿈꾸리’를 출범시켰다.

‘꿈꾸리’에는 현재 바이올린,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클리리넷, 트럼펫 등 8개 악기에 3~6학년생 45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주 2회 파트 연습과 전체 연습을 진행해 왔다.

서울 공연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지난 1월 7일 이번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청은석씨가 직접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다. 광주에서는 전주

‘우리가 만드는 한소리 오케스트라’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3명의 아이들이 뽑혔다.

선발된 아이들은 서효근씨 등 꿈꾸리 강사들에게 개별 트레이닝을 받았으며 1월 전주에서 1차 리허설 캠프를 갖기도 했다.

공연에 앞서 17~18일까지는 서울 국제 청소년센터에서 2차 리허

설 캠프를 열고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한다.

아이들이 연주할 곡목은 베토벤의 ‘운명’, 요한스트리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 비제의 ‘또래아도르’ 등으로 평균 실력을 요구하는 곡들이다. ‘꿈꾸리 단원’들은 50~100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작은음악회를 두번 연 적은 있지만 큰 무대나 대극을 연주해 본 적은 없다.

“오케스트라에 와서 바이올린을 처음 연주해봤어요. 처음에는 악기 도 제대로 못잡았는데 지금 완전 유명한 베토벤의 ‘운명’을 연주하고 있는 걸 보면 무지 신기해요. 공연 할 때 떨리면 어떡하죠. 아, 실수하면 끝장인데(웃음)”

지난해 언니 김세림(월산초 6년) 양과 ‘꿈꾸리’에 들어온 수민(월산 초 4년)양은 “언니와 함께 멋진 연주를 들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 ‘도민과의 대화’

내일부터 22개 시군 순방…‘대선발언’ 향의 예상 긴장

박준영 전남지사가 19일 순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22개 시·군을 순방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박 지사의 “대선 호남 봄표 충동적 선택” 발언에 대한 주민 항의가 예상돼 전남

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지사는 19일 순천시청에서 지역

예정이다.

이어 21일에는 광양을 방문하며 진도(22일), 장흥(26일), 고흥·보성(27일), 곡성·구례(28일) 등을 차례로 찾을 계획이다.

또 3월에는 강진(8일), 해남(11일), 영광·합평(13일), 나주(14일), 여수(15일), 장성·담양(26일), 무안·영암(29일) 등 10개 시·군에서 도민과 대화를 한다. 4월에도 완도(1일), 신안·목포(2일), 화순(3일) 등을 순

방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민과 대화에는 도로 확장과 포장, 주민 복지시설 지원 등 230여건의 건의사항과 민원 등이 접수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박 지사의 대선 발언과 관련 일부 정치권과 주민의 항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도를 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광우기자 kroh@kwangju.co.kr

울명철학

人間의 길 흥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점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현대문명에서도 죽듯이 제대로 뜯먹고, 신음하는 노후 인생과 빈명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험상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관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참고검증 해보는 것이 지혜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대만·대한민국 자민수 대가!

경천동지활 비술인(천문 자민수)로 수십년을 묵한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쾌하게 안내함. 역술과 풍수지리 참선의 길 기초부터 무료강의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협영)

감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대전·세종·충남·세종·전북·전남·전북)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3년 제10기)

• 개강일시 : 2012. 3. 4(월) 기초주간 14:00
기초야간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1. 21(월) ~ 2013. 2. 28(목)
• 수업기간 : 2012. 3. 4(월) ~ 2013. 6. 17(금) (총 90시간)
• 수 강 력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주간반: 30명
기초반 야간반: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 2학기까지 진급함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 주간반 14:00~17:00

- 야간반 18:00~21:00

● 수료 후 특전

• 기초계정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금수·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 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 530-3873-3876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

軍, 광주평동사격장 이전 용역 발주

朴당선인 공약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 부지

장성보병학교 내 이전·추가부지 등 여부… 3월말 결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광주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의 조성부지로 유력한 광주 광산구 평동 포 사격장 이전과 관련해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육군 교육사령부는 최근 평동 포 사격장(74만평)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교육사령부가 발주한 용역 내용은 평동 포 사격장 이전 방법으로 장성 보병학교 종합훈련장 내 이전할 수 있는지 추가부지 문제도 해결되는 만큼 포 사격장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보병학교 종합 훈련장 내 이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을 경우 장성군과 마찰을 빚어온 추가부지 문제도 해결되는 만큼 포 사격장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포 사격장 이전 문제가 해

결될 경우 인근 동백훈련장(124만평)의 영광군 이전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 광주시는 포 사격장 이전을 위해 보병학교 종합훈련장 인근 부지 30만~48만평 가량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장성군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보병학교 종합 훈련장 내 이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을 경우 장성군과 마찰을 빚어온 추가부지 문제도 해결되는 만큼 포 사격장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포 사격장 이전 문제가 해

결될 경우 인근 동백훈련장(124만평)의 영광군 이전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백훈련장 이전 대상지인 영광군 야산부지는 경사가 급하고 흙용기치도 험악하여 야산 소유주들도 매매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포 사격장과 동백훈련장이 이전하면 해당 부지를 박 당선인의 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육성’과 관련해 전기차동차·수소차 등 차단 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타당성 용역과는 빠르면 3월 말께 나을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육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용역인 만큼 시의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평동 포 사격장 이전을 꾸준히 요청해 온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세계 인권기록물 소장기관 5월 광주에 모인다

15~18일 회의 14개국 참가

이후 처음이다.

참가자는 238개(2011년 기준) 세계기록유산 중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 기록물을 포함해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 기록물을 소장하는 세계 14개국 기관 대표들이 광주에 모인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유네스코는 공동으로 오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인권기록물 소장기관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한다. 광주시의 제안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유네스코가 지난 199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시작한

주요 참여기관은 ▲파리 국립중앙 역사기록원 ▲폴란드 카르멘센터 고문서보관관 ▲포조단 현대역사센터, 독일위원회 세계기록유산추진위원회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기록보

관소 등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인권 기록물의 가치를 높이고 미등재 인권 기록물을 발굴·보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5·18기록물은 총 9종류 4271권, 85만8904쪽(흑백필름 2017장, 사진 1733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지난 2011년 5월 25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대법관

조병현 대전고법원장은 위원 지명

양승희 대법원장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인복(57·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 대법관은 위원회 호선 절차를 통해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맡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중 호선하게 되며, 대법관인 위원회를 선출하는 것이 관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전 대법관)이 사퇴함에 따라 법원 내 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명했다.

이 대법관과 조 법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임명된다.



이인복

나주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의 법정동 명칭이 ‘빛가람동’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법정동을 신설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사업부지는 나주시 산포면과 금천면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주민 편의 제공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 법정동 신설 필요성이 제